

# 청소년의 가족기능, 자기효능감 및 셀프리더십 분석

변 영 순<sup>1)</sup> · 옥 지 원<sup>2)</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 변화와 함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삶과 가치를 추구하고, 자율성을 확립하여 성숙하고 정체성이 정립된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해야 하는 발달과업을 갖는다(Lee, 2005).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여 자신들만의 생활양식과 행동방식을 찾고, 부모나 선생님에 대한 의존적 생활로부터 독립하여 생산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청소년들에게 요구되지만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학업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일상을 보내는 동안 급속한 신체적 성장과 심리사회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혼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가족 공동체의 기능 약화 및 치열한 입시경쟁 등의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발달과업을 달성하지 못하고, 가정, 또래, 학교 및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Bae, Kim, Jung, Kang, & Park, 2010).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문제는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Hanm & Kim, 2000) 최근에는 청소년 문제가 양적으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Bae et al., 2010) 점차적으로 집단화, 조직화, 능동화 및 저연령화(Roh, 2003) 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조명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청소년이 스스로 올바른 발달과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청소년의 발달과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접근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리더십(Kim, 2007)인 셀프리더십이라는 개념이 소개되었다. 셀프리더십은 자기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고 자신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Yun, Cox, & Sims, 200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위험 행동을 예방하여 성공적인 성인기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된다(van Linden & Fertman, 1998). 즉, 셀프리더십 개발을 통해 청소년들은 여러 환경 속에서 대처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갖고, 책임감과 사회적 성숙도를 높일 수 있으며(Ban, 2008),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자기이해 및 관리 능력을 함양하여(Park & Cheon, 2007) 혼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완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자기관리 능력을 발전시키는 발달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셀프리더십을 확인하고 셀프리더십을 예측하는 변인들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셀프리더십에 대한 간호학에서의 연구는 간호사 또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만이 보고되고 있는 실정으로(Cho, Ko, Kang, & Lee, 2011; Jung & Koh, 2012; Kang, Choi, Park, & Kim, 2010) 청소년의 셀프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리더십이 성인기에만 집중적으로 개발하여서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닌 아동기부터 청소년기를 통

**주요어 :** 청소년, 가족기능, 자기효능감, 셀프리더십

1)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부 교수

2) 동명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jiwonoak@gmail.com)

접수일: 2012년 10월 26일 1차 수정일: 2012년 11월 20일 게재확정일: 2012년 11월 25일

해 개발되어야 하며, 청소년기가 리더십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인 점을 감안해 볼 때(van Linden & Fertman, 1998), 청소년의 셀프리더십 개발 및 강화를 위해 청소년의 셀프리더십에 대한 간호학적 관심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활발히 보고되고 있는 셀프리더십에 대한 사회과학분야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최근 셀프리더십 강화의 요인이자 결과로 가족(Lee, 2010; Park, 2012)과 자기효능감(Neck & Houghton, 2006; Sung, 2010)을 주목하고 있다. 청소년기가 가족의 울타리를 표면적으로 벗어나 심리적 독립을 추구해가는 시기로 청소년의 심리나 안녕감에 가족 전체의 체계나 기능이 갖는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Petts, 2008)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셀프리더십 형성에 있어 가족의 역할이 중요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발달에 중요한 변인으로 여겨지는 자기효능감(Cho, Lee, & Lee, 2004)은 개인의 열망과 노력, 인내력과 사고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Neck & Houghton, 2006), 셀프리더십 자체가 자아를 중요시하는 자율적인 사고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은 Bandura (1976)가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동기부여 측면에서 임파워먼트의 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Lee, Lee, & Kim, 2009). 따라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발달단계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는 셀프리더십 정도를 확인하고, 셀프리더십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족기능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족기능, 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을 분석하고, 제 변수들이 청소년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확인하여 청소년의 셀프리더십 강화 전략 구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의 가족기능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셀프리더십을 분석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가족기능, 자기효능감 및 셀프리더십 정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정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가족기능, 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의 관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족기능, 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을 파악하고, 제 변수들이 청소년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연구대상 및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 대상은 M시 소재 중고등학교 2개교의 학생을 편의 추출하였으며, 연구 참여와 설문지 작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 거부, 익명성 보장 및 중도포기 가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후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자만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power analysis (<http://www.power-analysis.com>)를 실시하여 유의수준( $\alpha$ )은 .05, 회귀분석의 medium effect size .15, 검정력( $1-\beta$ )은 .80으로 산정하였으며, 표본수는 672명이 산출되었다. 무응답 또는 불완전 응답으로 제외될 수 있는 설문지를 고려하여 총 81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788부의 설문지(회수율 97.2%) 중 불완전하게 응답한 설문지 9부를 제외한 총 779부(응답률 96.1%)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 연구 대상자는 중학생 404명(51.9%)과 고등학생 375명(48.1%)으로 구성되었다.

## 연구 도구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학교성적, 리더경험 여부, 리더십 관련 교육 경험 여부, 부모의 학력, 생활수준, 부모와의 관계 만족정도, 학교생활 만족정도, 교사와의 관계 만족정도, 친구와의 관계 만족정도), 가족기능, 자기효능감 및 셀프리더십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 가족기능

가족기능은 Byles, Byrne, Boyle과 Offord (1988)의 맥매스터 가족기능모형(The McMaster Model of Family Assessment Device, FAD)을 Kim (1998)이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7문항으로 가족 구성원들끼리 주어진 자극에 적절한 양과 질의 감정을 나타내는 능력을 측정하는 정서적 반응성(affective responsiveness) 4 문항, 가족 간의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여 효율적인 가족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적극적 가족문제 해결(active problem solving) 5문항, 도구적인 문제나 정서적인 문

Table 1. Level of Family Function,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in Adolescents

(N=779)

Variable	Mean ±SD	Possible range Min. – Max.	Current range Min. – Max.
Family function	2.39± 0.50	1.00-3.00	1.00-3.00
Emotional reactivity	2.45± 0.54	1.00-3.00	1.00-3.00
Positive resolution of family problems	2.26± 0.55	1.00-3.00	1.00-3.00
Communication	2.36± 0.53	1.00-3.00	1.00-3.00
Role awareness and emotional support	2.47± 0.55	1.00-3.00	1.00-3.00
Self-efficacy	3.09± 0.40	1.00-5.00	1.00-4.62
General self-efficacy	2.95± 0.36	1.00-5.00	1.00-4.24
Social self-efficacy	3.24± 0.58	1.00-5.00	1.00-5.00
Self-leadership	3.29± 0.52	1.00-5.00	1.00-5.00
Behavior-focused strategies	3.20± 0.57	1.00-5.00	1.00-5.00
Cognitive strategies	3.37± 0.57	1.00-5.00	1.00-5.00

Table 2. Differences in Self-Leadership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779)

Variables	Categories	N (%)	Self-leadership					
			Total		Behavior-focused strategies		Cognitive strategies	
			M±SD	t/F (p)	M±SD	t/F (p)	M±SD	t/F (p)
Grade	Middle school	404 (51.9)	3.28±0.57	-0.41	3.18±0.59	-1.53	3.38±0.61	0.75
	High school	375 (48.1)	3.30±0.46	(.683)	3.24±0.51	(.127)	3.35±0.51	(.455)
Gender	Male	393 (50.4)	3.26±0.52	-1.44	3.17±0.56	-1.66	3.35±0.56	-1.01
	Female	386 (49.6)	3.31±0.51	(.152)	3.24±0.55	(.098)	3.39±0.57	(.309)
School records	High	114 (14.6)	3.58±0.60	42.56	3.53±0.62	41.99	3.63±0.64	31.27
	Medium	460 (59.1)	3.32±0.48	(.000)	3.23±0.51	(.000)	3.40±0.54	(.000)
	Low	205 (26.3)	3.06±0.45	c<b<a	2.98±0.50	c<b<a	3.15±0.49	c<b<a
Experience as a leader	Yes	334 (42.9)	3.43±0.55	6.57	3.36±0.59	7.04	3.49±0.60	5.15
	No	445 (57.1)	3.19±0.47	(.000)	3.09±0.49	(.000)	3.28±0.522	(.000)
Experience of receiving education for leadership	Yes	198 (25.4)	3.37±0.53	2.71	3.29±0.57	2.37	3.46±0.58	2.65
	No	581 (74.6)	3.26±0.51	(.007)	3.18±0.54	(.018)	3.34±0.56	(.008)
Father's education	≥ College graduate <sup>a</sup>	283 (36.3)	3.36±0.52	4.66	3.27±0.54	3.42	3.45±0.57	4.91
	High school graduate <sup>b</sup>	456 (58.5)	3.25±0.51	(.000)	3.18±0.55	(.033)	3.32±0.54	(.008)
	≤ Middle school graduate <sup>c</sup>	40 ( 5.1)	3.18±0.61	b<a	3.07±0.58		3.29±0.72	b<a
Mother's education	≥ College graduate <sup>a</sup>	237 (30.4)	3.39±0.54	2.15	3.28±0.56	5.68	3.50±0.59	9.40
	High school graduate <sup>b</sup>	501 (64.3)	3.25±0.49	(.000)	3.19±0.53	(.004)	3.32±0.54	(.000)
	≤ Middle school graduate <sup>c</sup>	41 ( 5.3)	3.11±0.59	b,c<a	2.99±0.63	c<a	3.23±0.63	b,c<a
Economic status	High <sup>a</sup>	152 (19.5)	3.43±0.59	8.07	3.33±0.61	5.25	3.54±0.64	8.94
	Average <sup>b</sup>	572 (73.8)	3.26±0.49	(.000)	3.19±0.53	(.005)	3.33±0.53	(.000)
	Low <sup>c</sup>	52 ( 6.7)	3.17±0.54	b,c<a	3.09±0.58	b,c<a	3.26±0.58	b,c<a
Relationship with parents	Satisfactory <sup>a</sup>	511 (65.6)	3.38±0.52	27.87	3.30±0.54	30.17	3.46±0.58	19.13
	Average <sup>b</sup>	243 (31.2)	3.13±0.43	(.000)	3.05±0.47	(.000)	3.21±0.78	(.000)
	Unsatisfactory <sup>c</sup>	25 ( 3.2)	2.89±0.72	b,c<a	3.70±0.83	c<b<a	3.09±0.72	b,c<a
School life	Satisfactory <sup>a</sup>	393 (50.4)	3.41±0.53	23.25	3.33±0.56	21.59	3.49±0.59	18.38
	Average <sup>b</sup>	338 (43.4)	3.16±0.44	(.000)	3.08±0.50	(.000)	3.24±0.48	(.000)
	Unsatisfactory <sup>c</sup>	48 ( 6.2)	3.19±0.63	b,c<a	3.09±0.64	b,c<a	3.30±0.70	b<a
Relationship with teachers	Satisfactory <sup>a</sup>	365 (46.9)	3.44±0.52	43.14	3.36±0.55	35.78	3.52±0.58	37.61
	Average <sup>b</sup>	372 (47.8)	3.20±0.45	(.000)	3.11±0.49	(.000)	3.28±0.49	(.000)
	Unsatisfactory <sup>c</sup>	42 ( 5.4)	2.81±0.58	c<b<a	2.76±0.65	c<b<a	2.86±0.56	c<b<a
Relationship with friends	Satisfactory <sup>a</sup>	515 (66.1)	3.35±0.53	13.32	3.27±0.56	13.44	3.43±0.57	9.82
	Average <sup>b</sup>	252 (32.3)	3.18±0.46	(.000)	3.10±0.48	(.000)	3.26±0.52	(.000)
	Unsatisfactory <sup>c</sup>	12 ( 1.5)	2.87±0.77	b,c<a	2.71±0.88	c<b<a	3.03±0.75	b<a

제를 가지고 있을 때 가족 성원들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의사소통(communication) 4문항, 가족 성원들이 가족 기능을 수행하는 반복적 행동 유형을 측정하고 가족 성원들의 활동이나 관심사에 어느 정도 지지하고 관심을 나타내는 가를 측정하는 역할인식과 정서적 지지(role recognition and emotional support) 4문항의 4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3점 척도로 최저 1점에서 최고 3점으로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Kim (1998)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9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96$  이었다.

●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Sherer 등(1982)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Hong (1995)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23문항으로 일반적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과 대인관련 사회적 기술 등의 요소를 측정하는 사회적 자기효능감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으로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ong (1995)의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6$  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7$  이었다.

●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Manz와 Neck (1998)이 개발한 도구를 Kim (2007)이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번안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자기관찰, 단서전략, 목표설정, 자기보강, 연습으로 구성된 행동중심적 전략 15문항과 자연보상의 분별, 환경조성, 자연보상을 주는 활동을 일에 도입하기, 일의 좋은 면에 초점 맞추기, 내적 보상에 집중하기로 구성된 인지적 전략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으로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Kim (2007)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87$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95$  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2년 6월 4일부터 15일까지였다. 사전에 M시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기관장에게 연구자가 전화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여부를 확인하였다. 참여를 허락한 중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 각 1개교를 연구자가 방문하여, 각 학급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으며, 연구에 동의한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연구 취지와 기재요령을 설명한 후 조사하였다. 즉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자료의 비밀보장과 익명성, 연구 참여에의 철회 가

Table 3. Correlations of Family functions,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in Adolescents (N=779)

Variable	Total r ( $\rho$ )	Self-leadership	
		Behavior-focused strategies r ( $\rho$ )	Cognitive strategies r ( $\rho$ )
Family functions	.36 (.000)	.35 (.000)	.32 (.000)
Emotional reactivity	.32 (.000)	.32 (.000)	.28 (.000)
Positive resolution of family problems	.34 (.000)	.33 (.000)	.30 (.000)
Communication	.34 (.000)	.33 (.000)	.31 (.000)
Role awareness and emotional support	.33 (.000)	.33 (.000)	.29 (.000)
Self-efficacy	.51 (.000)	.47 (.000)	.49 (.000)
General self-efficacy	.50 (.000)	.47 (.000)	.46 (.000)
Social self-efficacy	.40 (.000)	.36 (.000)	.39 (.000)

Table 4. Related Factors in regards to Self-Leadership from Stepwise Regression (N=779)

Variable	Self-leadership							
	B	SE	$\beta$	t	$\rho$	R <sup>2</sup>	F	$\rho$
Self-efficacy	.53	.04	.42	14.16	.000	.291	85.25	.000
Family functions	.20	.03	.20	6.70	.000	.349		
Relationship with teachers, satisfactory	.12	.03	.12	4.04	.000	.370		
Experience as a leader	.10	.03	.10	3.32	.001	.385		
School record, high	.24	.05	.17	4.80	.000	.395		
School record, average	.12	.03	.11	3.37	.001	.404		

능성 등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및 설문지 작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를 작성한 학생에 한하여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분 정도였다. 연구에 동의하였더라도 중도포기를 원하거나 설문지 작성을 원치 않는 학생들은 빈 설문지를 제출하게 하였다.

###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가족기능, 자기효능감 및 셀프리더십 정도는 서술적 통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정도는 t-test와 ANOVA 및 사후검정으로는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가족기능, 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연구 결과

### 대상자의 가족기능, 자기효능감 및 셀프리더십 정도

대상자의 가족기능, 자기효능감 및 셀프리더십 정도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가족기능은 평균 2.39점(SD=0.50)으로 역할인식과 정서적 지지 점수(Mean=2.17, SD=0.55)가 가장 높았으며, 적극적 가족문제 해결 점수(Mean=2.26, SD=0.55)가 가장 낮았다. 자기효능감은 평균 3.09점(SD=0.40)으로 사회적 자기효능감 점수(Mean=3.24, SD=0.58)가 일반적 자기효능감 점수(Mean=3.24, SD=0.58)보다 높았으며, 셀프리더십은 평균 3.29점(SD=0.52)으로 인지적 전략 점수(Mean=3.37, SD=0.57)가 행동중심적 전략 점수(Mean=3.20, SD=0.57)보다 높았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셀프리더십은 학교성적( $F=42.56, p<.001$ ), 리더경험 여부( $t=6.58, p<.001$ ), 리더십 관련 교육경험 여부( $t=2.71, p=.007$ ), 부모의 학력(부,  $F=4.66, p<.001$ ; 모,  $F=2.15, p<.001$ ), 생활수준( $F=8.07, p<.001$ ), 부모와의 관계 만족정도( $F=27.87, p<.001$ ), 학교생활 만족정도( $F=23.25, p<.001$ ), 교사와의 관계 만족정도( $F=43.14, p<.001$ ), 친구와의 관계 만족정도( $F=13.32, p=.001$ )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을 한 결과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아버지(부)의 학력이 고졸인 대상자보다 대졸인 대상자일수록, 어머니(모)의 학력이 고졸 또는 중졸인 대상자

보다 대졸인 대상자일수록, 경제수준이 중 또는 하인 대상자보다 상인 대상자일수록, 부모와의 관계에 보통 또는 불만족인 대상자보다 만족한 대상자일수록, 학교생활에 보통 또는 불만족인 대상자보다 만족한 대상자일수록, 교사와의 관계에 만족한 대상자일수록, 친구와의 관계에 보통 또는 불만족한 대상자보다 만족한 대상자일수록 셀프리더십 정도가 높았다.

### 대상자의 가족기능, 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

대상자의 가족기능, 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은 가족기능( $r=.36, p<.001$ ), 자기효능감( $r=.51, p<.001$ )과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셀프리더십과 가족기능, 자기효능감의 각 세부 요인과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일반적 변수, 가족기능 및 자기효능감을 투입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일반적 변수 중 학교성적, 리더경험 여부, 리더십 관련 교육경험 여부, 부모의 학력, 생활수준, 부모와의 관계 만족정도, 학교생활 만족정도, 교사와의 관계 만족정도, 친구와의 관계 만족정도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였으며, 케이스 진단 후 절제값이 3보다 큰 이상점 7개를 제거하였다. 독립 변인 간의 공차한계(tolerance)는 .71-.92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09-1.51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고, Cook's D의 최대값이 .05로 1.0이상인 개체가 없었다. Durbin-Watson 검정통계량은 1.87로 오차항의 자기상관이 없었으며, 잔차의 분석결과 선형성, 정규성 및 등분산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분석결과 자기효능감( $\beta=.42, p<.001$ ), 가족기능( $\beta=.20, p<.001$ ), 교사와의 관계 만족( $\beta=.12, p<.001$ ), 리더경험( $\beta=.10, p=.001$ ), 높은 학교성적( $\beta=.17, p<.001$ ), 중등도의 학교성적( $\beta=.11, p=.001$ )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셀프리더십에 대한 설명력은 각각 29.1%, 5.8%, 2.1%, 1.0%, 0.9%로 전체 설명력은 40.4%이었다. 본 모형의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85.2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1$ ).

##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족기능, 자기효능감 및 셀프리더십을 분석하고, 청소년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평균 3.29점으로 인지적 전략 점수보다 하고 싶지는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들을

완수하기 위해 행동을 강화 또는 억제하여 궁극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전략인 행동중심적 전략 점수(Manz & Nick, 1998)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중, 고, 대학생에 대상으로 셀프리더십을 확인한 Sung (201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행동중심적 전략은 실패를 유도하는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억제하면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키는 전략으로 청소년의 낮은 행동중심적 전략은 청소년의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위험행동을 유발하여 청소년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von Linden & Fertman, 1998). 따라서 올바른 청소년 발달을 돕기 위해 청소년의 행동중심적 전략을 강화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교사와의 관계 만족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Park (2012)의 연구에서 교사와의 관계 만족이 청소년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로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에게 교우관계 못지않게 교사와의 관계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셀프리더십 차이에서 여자의 셀프리더십 전략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셀프리더십 전략 점수가 높다는 Sung (201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성별에 따른 셀프리더십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2)의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하여 리더십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어 지속적인 반복 연구를 통한 셀프리더십과 성별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가족기능은 평균 2.39점으로 역할인식과 정서적 지지, 정서적 반응성 점수가 높고, 상대적으로 의사소통과 적극적 가족문제 해결은 낮게 나타나 가족기능이 평균 2.28점으로 정서적 지지와 정서적 반응성 점수가 높았던 Lee와 Oak (201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 가족구성원인 가족은 가족구성원들의 활동이나 관심사에 대한 지지와 관심이 높고, 주어진 자극에 따라 적절한 내용과 적절한 양의 감정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반면 가족 구성원들끼리 정보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가족 간의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상호작용이 부족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족의 부적절한 의사소통은 주어진 정보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가족의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 결여된 지나친 관심은 청소년의 위기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과 적극적 가족문제 해결을 통해 청소년 가족의 기능적 효과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가족기능은 셀프리더십과 순상관관계로 가족기능이 셀프리더십을 설명하는 두 번째 중요한 변수로 확인

되었는데, 이는 부모 모두 개방적 의사소통방식을 취할 때 청소년 리더십생활기술이 가장 높다고 분석하여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청소년의 리더십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한 바 있는 Jang과 Han (2008)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청소년기는 가족의 울타리를 표면적으로 벗어나 심리적 독립을 추구해가는 시기로 청소년의 심리나 안정감에 가족 전체 체계나 기능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으며, 청소년기의 올바른 가족기능 수행은 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Petts, 2008). 따라서 셀프리더십 강화 전략 구축에 있어 청소년기에 급격히 변화하는 신체적, 정서적 문제를 극복하고 올바르게 발달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평균 3.09점으로 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이 순상관관계로 확인되었으며, 셀프리더십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설명력은 29.1%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셀프리더십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리더십과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본인의 리더십생활기술에 가장 큰 예측요인이라고 보고한 Lee (2010)의 연구 및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이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Kim (201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청소년의 셀프리더십 강화를 위해서는 자기변화 및 성장과 관련된 셀프리더십 역량 증진에 효과적인 변인으로 예측되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증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청소년의 셀프리더십을 점진적으로 강화시키고, 일정수준의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자신감을 갖게 하는 성취경험을 강조한 맞춤형 교육 및 성숙한 모방을 통한 자기 관리 역량을 증진시키고 올바른 가치 확립을 유도할 수 있는 대리경험을 반영한 멘토링 프로그램과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의 도입은 청소년들의 셀프리더십 강화에 대한 동기부여를 극대화하고, 적극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청소년 자기효능감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청소년의 셀프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는 셀프리더십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로 청소년의 셀프리더십을 개발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청소년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von Linden & Fertman, 1998), 원만하고 진취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위험 행동을 예방하여 성공적인 성인기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되어 청소년 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 예측요인으로 확인된 자기효능감과 가족기능 및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를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성공적인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족기능과 자기효능감 및 셀프리더십을 분석하여 세 변수들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청소년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학교성적, 리더경험 여부, 리더십 관련 교육 경험 여부, 부모의 학력, 생활수준, 부모와의 관계 만족정도, 학교생활 만족정도, 교사와의 관계 만족정도, 친구와의 관계 만족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가족기능 및 자기효능감과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 가족기능, 교사와의 관계, 리더경험 여부 및 학교성적으로 이들 변인은 청소년의 셀프리더십을 40.4%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 개인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청소년 가족의 가족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셀프리더십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청소년의 셀프리더십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셀프리더십의 다양한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셀프리더십을 강화하고, 발달과정에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특성이 반영된 셀프리더십 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요구된다.

## References

- Bae, J. M., Kim, D. M., Jung, S. K., Kang, T. H., & Park, H. J. (2010). *2010 a national survey of youth risk behaviors*. Seoul: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 Ban, K. W. (200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problem behavior and youth's leadership life skil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ungji University, Seoul.
- Bandura, A. (1976). *Social Learning Theory*. New York: General Learning Press.
- Byles, J., Byrne, C., Boyle, M. H., & Offord, D. R. (1988). Ontario child health study: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general functioning subscale of the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Family Process*, 27, 97-104, <http://dx.doi.org/10.1111/j.1545-5300.1988.00097.x>
- Cho, H., Lee, J. Y., & Lee, C. S. (2004). Development of self-efficacy enhancement program for the adolescent.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3, 345-359.
- Cho, H., Ko, Y. A., Kang, Y. S., & Lee, G. Y. (2011). Self-leadership and self-concept in the freshmen of nursing college.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25, 107-117.
- Hann J. C., & Kim, I. K. (2000). The bullying and psychosocial dysfunct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6(2), 103-114.
- Hong, H. Y. (1995). *The relationships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Jang, H. S., & Han, J. L. (2008). The effects of adolescent's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attachment with parents on their leadership life skill.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3, 207-226.
- Jung, M. H., & Koh, M. S. (2012). The effects of preceptor nurses' self-leadership on role recognition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8, 146-154.
- Kang, Y. S., Choi, Y. J., Park, D. L., & Kim, I. J. (2010). A study on nurses' self-leadership, self-esteem,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6, 143-151.
- Kim, J. E. (1998). *A study on the family functioning and its relation juvenile delinquency-focused on average adolescents and juvenile delinqu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Hyosung, Gyeongsan.
- Kim, M. J. (2007). *An inquiry into learner factors influencing the self-leadership development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M. K. (2012). The relationship of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and self-efficacy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HRD Research*, 7(3), 21-43.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2). *Quality management in higher education for developing core competencies of college students*. Seoul: Author.
- Lee, C. S. (2005). *Structur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youth leadership skill*. Unpublished doctoral's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Lee, H. S., & Oak, J. W. (2012). Effects of family function and depression on impulsive behavior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9, 374-382. <http://dx.doi.org/10.7739/jkafn.2012.19.3.374>
- Lee, K., Lee, M., & Kim, I. (2009). The effects of soccer leaders' self-leadership and empowerment on innovative behavior.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18(3), 109-119.
- Lee, Y. S. (2010). *Effects of their parent breeding attitude and self-efficiency on adolescent's leadership skil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Yongin.
- Manz, C. C., & Neck, C. P. (1998). *Mastering self-leadership: Empowering yourself for personal excellence*. NJ: Prentice Hall.
- Neck, C. P., & Houghton, J. D. (2006). Two decades of self-leadership theory and research: Past developments, present trends, and future possibilities.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1, 270-295. <http://dx.doi.org/10.1108/02683940610663097>
- Park, M. S., & Cheon, S. M. (2007).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self-leadership.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Science*, 10, 49-64.
- Park, W. Y. (2012). *Study on leadership development with parent support, friends, and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 thesis, Hannam University, Dajeon.
- Petts, R. J. (2008). *Family, religion, and well-being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Patterns of religious participation and the influence of family and religious characteristics on trajectories of well-be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Ohio.
- Power and precision, from <http://www.power-analysis.com>
- Roh, Y. S. (2003). *Study on peer relationship and delinquency of juvenile: Focused on Chung-nam high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http://dx.doi.org/10.2466/pr0.1982.51.2.663>
- Sung, W. K. (2010). *The effect of youth's self-leadership and the type parent's commitment to study on academic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ungji University, Seoul.
- van Linden, J., & Fertman, C. I. (1998). *Youth leadership: A guide to understanding leadership development in adolescent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Yun, S., Cox, J., & Sims, H. P. (2006). The influence of leader behaviors on follower self-leadership: An application of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HLM).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17*, 91-136.

## Analysis of Family Function,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in Adolescents

Byeon, Young Soon<sup>1)</sup> · Oak, Ji Won<sup>2)</sup>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2)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Tongmyong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of family function,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an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self-leadership in adolescents. **Method:** Sampling was done using a convenience sampling method and 779 adolescents were recruited between June 4 and 15, 2012.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which included general characteristics, family function,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t-test, one way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WIN 19.0. **Result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1)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self-leadership and family function ( $r=.36, p<.001$ ), and self-efficacy ( $r=.51, p<.001$ ). 2) Self-leadership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elf-efficacy ( $\beta=.42, p<.001$ ), family function ( $\beta=.20, p<.001$ ), satisfactory relationships with teachers ( $\beta=.12, p<.001$ ), experience as a leader ( $\beta=.10, p=.001$ ), higher school records ( $\beta=.17, p<.001$ ), and medium school records ( $\beta=.11, p=.001$ ). These variables explained 40.4% of variance in adolescents' self-leadership.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in adolescents and that in developing intervention programs to promote self-leadership, in adolescents, these variables should be considered.

**Key words :** Adolescent, Family Relations, Self Efficacy, Leadership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Oak, Ji Won

Department of Nursing, Tongmyong University

428 Sinseon-ro, Nam-gu, Busan, Korea, 608-711

Tel: 82-51-629-2672 Fax: 82-51-629-2019 E-mail: jiwonoak@gmail.com